

‘식민지 정당’ 환영하는 한국좌파

태평로

이 하원
논설위원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의 중요한 분기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짓말쟁이’ 꼬리표를 또 하나 추가하며 위성정당 비례제(준연동형)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 방지’ 대선 공약을 파기하며 하루에 4차례 고개를 숙였다. 좌파 진영에서 이 결정을 사전에 예상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이가 후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달 정의당이 녹색당과 1회용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자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탈당했다. 그는 “정의당은 조만간 조국 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움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얼마 전에는 “정의당 주류가 민주당한테 질적저하된다”고도 했다.

류 전 의원 지적대로 정의당은 2020년과는 달리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참여할 태세며 민주당은 이번엔 제대로 ‘2중대’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민주당 주도가 아니고 다수당이 소수당에 의석을

양보하는 것”이라고 가립막을 쳤다. 이번엔 다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개혁 세력의 만형으로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추진단장은 “만이 격인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 연합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만형론’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기획·총괄·운영하는 식민지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의당을 한때 대표했던 어떤 의원은 이 대표 결정에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원내입성 위해 ‘2중대’ 비판속에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 태세 목적이 수단 정당화 갈수록 심각 노회찬 의원은 이를 용납했을까

·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준비 등이 참여한 새진보연합은 아예 대놓고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위성정당 방지 공약 파기는 문제 삼지도 않는다. 정의당을 비롯한 좌파 군소 정당은 ‘반(反)윤석열 연합’을 명분으로 민주당의 식민지 정당에 참여하면 국회 의석을 늘리기 유리하다고 본다. 여기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괜찮다는 식의 세계관이 반영돼 있다. 정의당에서 항소심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의원이 의석을 다른 이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사직하고, 의원직 나눠 먹기 위해 ‘비례대표 2번 순환제’를

정한 것도 이런 가치관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라고도 ‘진보’라고 불리기를 바라나.

유권자들이 지적했듯이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배제하고 강행 처리한 선거법이 모체다. 이 때문에 4년 전 의원 꺾이기, 됐다방 정당 등으로 한바탕 광풍이 분 것을 유권자들은 잊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 의뢰로 한국정치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1대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례·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유권자들이 지적했듯이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됐다방 정당에 표를 찍으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높아진 의식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닷가의 모래성 같은 1회용 가설(假設) 정당은 어떤 명분을 들이대도 용인하기 어렵다. 좌파 군소 정당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켜가며 국민의 표를 얻는 길을 가야 한다.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식민지 정당에 들어가 국회에 진입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만든 더불어민주당에 참여한 정당들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나.

이럴 때 그나마 소수 정당의 자존심과 명분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노회찬 전 의원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노 전 의원이라면 명분 없는 2중대 노릇에 분명히 선을 긋지 않았을까.

김준의 맛과 섬 [177]

제주 허멩이답도리

입춘이면 ‘탐라국 입춘굿’을 보기 위해 매년 제주를 찾고 있다. 입춘을 제주에서는 ‘새철되는 날’이라 한다. 탐라왕이 소를 끌며 쟁기를 잡고 몸소 밭을 가는 풍습이 있다는 기록이 전해오고 있다. 제주목 관아에서 관과 민이 풍년을 기원하는 입춘굿을 벌였다. 그것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춘경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입춘굿 놀이는 일제 시대 그 맥이 끊겼다가 1999년 지역 축제로 발굴·복원되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인상 깊게 본 것은 ‘허멩이답도리’다. 허멩이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받는 존재다. ‘허멩이답도리’는 아픈 기억, 좋지 않았던 것, 나쁜 병, 버리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적어서 허멩이에게 맡기는 의례이다. 허멩이는 띠풀을 이용해 만든다. 띠풀은 제주에서는 ‘새’라고 부른다. 벼

농사가 귀한 제주에서 지붕을 일 때 벗겨진 새를 사용한다. 슬레이트나 기와 등이 보급되기 전에는 띠풀도 귀해서 마음대로 베지를 못했다. 가파도나 마라도 등은 본섬에서 새를 가져와 지붕을 이기도 했다.

허멩이는 먼저 새를 한 묶음 잡아 몸과 다리를 만들고, 다음은 열십자(十) 모양이 되도록 새를 한 묶음씩 위와 아래에 놓고 묶는다. 완성된 허멩이는 다리가 있는 허수아비 모양이다. 그 위에 하얀 천이나 종이로 옷을 입히고, 이목구비를 그려 넣는다. 입춘굿은 거리굿, 열림굿, 입춘굿으로 진행되는데, 허멩이답도리는 모신 신들을 보내고 한 해 운수를 보는 것과 함께 마무리 굿으로 이루어진다.

육지에서라도 짚으로 허재비를 만들어



액을 보내는 풍습이 있다. 전북 부안 위도의 대리마을에서 지내는 원당제 마지막 절차가 띠베놀이이다. 모든 액운을 허재비에 붙여 배에 태우고 노자와 음식과 함께 바다로 보낸다.

제주도에서 정월대보름은 ‘방쉬’를 하여 액을 막는 날이다. 방쉬는 액운 혹은 액신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삼재가 들었거나 신수가 좋지 않은 사람은 이때 액땀을 한다. 벗짚으로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삼거리나 바닷가로 가져가 버리는 ‘도채비 방쉬’이다. 간혹 심방(무당)이 축원굿을 함께 한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중형, 李 대표 또 ‘모른다’ 할 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벌어진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개발업자에게 알선 대가로 받았다는 70억여 원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다. ‘백현동 사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도전했을 때 선대위원장직을 지낸 측근이다. 김씨에게 직접 청탁받고 백현동 사업이 이뤄지도록 해줬다는 사람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다. 재판부는 이 사실관계를 다 인정했다. 이 대표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은 아니지만 핵심 측근이 두 명이나 연루된 그 과정을 이 대표가 몰랐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을 계속 거부하다 김인섭씨가 민간 업체에 영업인 뒤 갑자기 4단계로 뛰어넘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 분야 공무원들은 ‘전례도 없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특혜’라고 한다. 김씨 청탁에 따라 개발 방식도 민간 합동 개발이 아닌 민간 업체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민영 개발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청탁을 받은 정진상씨가 담당 공무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지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당장 집단행동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의료 현장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의사협회도 15일 전국에서 셧아웃 행사를 연다고 한다. 의사가 눈앞의 환자를 치료하지 않겠다는 것은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모두 불법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법 이전의 문제다.

지금 지역 의료와 소아과 등 필수 의료의 위기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의사 수 부족도 큰 원인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의료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도 분명하다. 의대 정원을 큰 폭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의사들이 돈벌이에 지장 있을까 봐 의사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인의 숭고한 직업 정신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이번에 집단행동을 할 경우 2000년 의약 분업, 2014년 비대면 진료, 2020년 의대 증원 이슈 때 등 근래에만 벌써 네 번째다. 국민 건강과

에게 “잘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과 정황을 재판부는 다 인정했다. 그 외에도 임대 아파트 비용 축소, 불법 옹벽 설치 등 각종 특혜도 됐다. 이 덕분에 민간 업자는 이익을 1356억원 봤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몰랐을 수 있나. 믿기 힘든 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김인섭씨에 대해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서 자신은 백현동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 대표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씨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씨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가깝지 않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이 대표와 정진상씨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진실은 머지 않아 드러날 것이다.



의료계 집단 이익 대신 국민의 존경과 신뢰 얻길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마치 노조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의협 회장들이 후배들을 설득하지 않고 도리어 자극하고 있다. 전 의협 회장 한 사람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2000년 의약 분업 당시의 혼란을 거론했다. 다른 사람도 “의사 알기를 정부 노예로 아는 정부”라고 했다. 정부가 왜 의사들을 이기려 하겠으며, 왜 의사들을 노예로 알았나. 지금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은 의사들이 국민을 이기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시 업무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 징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벌어진다면 분명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 최고 지식인인 의사들마저 집단행동으로 자신들 집단 이익을 지키려 한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런 일만은 막아서 우리 의료계가 받아 마땅한 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

“독립운동가가 돈봉투 받고 립살롱 가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독립운동가들이 돈봉투 들고, 립살롱 가느냐”고 했다. 상대 당 말이긴 하지만 한 위원장의 언급은 운동권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다. 홍익표 대표는 “운동권보다 검찰이 립살롱 더 많이 갔다”고 했지만, 이런 식이 아닌 제대로 된 답을 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운동권이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쟁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에 따르는 영화를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 운동권 일부는 정치권에 진출해 무려 30년 넘게 권력을 누리고 있다. 군사독재도 이렇게 긴 기간 정치를 독점하지 못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라니만 못하다. 적정 수명을 넘긴 운동권 권력은 선거 제도 일방 결정, 위성 정당 창당, 위장 탈당 등 온갖 꾀수를 동원해 입법 폭주를 했다. 민주화 세력이라면서 반민주 행태는 다 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부모와 자녀

다큐 건국전쟁

이제야 평평 울었다... 100만 1000만이 운동권 청산하자

[이승만=악마] 깨부셨다 | [건국과정] 너무 몰랐다 | [신화와 우화] 무너진다 | [진실의 역사] 깨어나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

이승만은 한반도 최초의 근대 국민 국가를 창시한 독립 시조(始祖).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선구자였다. 그는 백 년 후 미래를 내다본 예언자였다. 그가 만든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의 선진국이 되었다.

그들은 이승만을 악마로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의 세대는 그를 ★ 친일파 ★ 독재자 ★ 6.25 당시 한강철교를 끊고 도망간 ‘림승만’이라 매도한다. 허와이에 있는 그의 기념관은 폐허로 방치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이승만 때문에 [남조선혁명을] 좌절당한 극좌 위선자들의 [이승만 악마화] 탓이다.

다큐가 불러온 강력한 힘

〈건국 전쟁〉은 이 왜곡과 부지와 맹신을 대중적 차원에서 깨버리는 최초의 성공적 작업이라 할 만하다. 좌익 학자들의 [이승만 악마화]를 자유 진영 학자들이 반박하는 게,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다. 그게 고작이었다.

다큐멘터리 〈건국 전쟁〉은 그 수준을 넘어, 전 국민적 차원에서 [이승만 바로 알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는 “그런 인물이 있었어?”라고 할 것이다. 일부는 “그런 사람인지는 몰랐다”라고 할 것이다. 또 일부는 “나쁜 사람이 줄 알았다”라며, 놀랄 것이다.

남은 것 자유대한민국, 얻은 것 역사 왜곡

그만큼 오늘의 한국인들은, 한국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 부모도 학교도 역사책도 언론도 일깨워주지 않던 거짓말 [이승만=악마]란 신화, 그 우화(寓話)가 이렇게 해서 깨어지기 시작한 셈이랄까?

〈건국 전쟁〉은 청년 정치범 사형수 이승만이 어떻게 중국 문화권에서 서구 근대문명권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수행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그가 어떻게 국제정치를 내다 봤고 일본의 패망과 8.15해방을 예언했는지를, 보여준다.

8.15 해방공간 정국의 이승만이 어떻게 좌익 통일전선에 휘말리지 않고 자유대한민국 건국으로 매진했는지를, 그리고 그가 6.25 전란 때 어떻게 반공포로 석방 등으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잔류를 쟁취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4.19 학생혁명,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기봉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가 어떻게 모든 책

임을 지고 담담히 하야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쓸쓸히 허와이로 떠났다. 남은 것은 자유 대한민국이었고, 얻은 것은 그에 대한 역사 왜곡이었다.

역사는 부활하고, 국민은 깨어난다

그러나 진실의 역사는 한때 감춰지더라도 언젠가 다시 살아나는 법. 다큐멘터리 〈건국 전쟁〉은 이 시대를 향해 외친다. “역사에 부활하라, 국민은 깨어나라”라고.

어떻게 깨어날 것인가?

※ 우리가 자신을 너무 몰랐다는 것
 ※ 우리가 대한민국을 너무 몰랐다는 것
 ※ 우리가 비교 능력이 너무 없었다는 것
 이것들을 깨우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유일하게 자유와 번영을 당대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나라다. 그 선두에 이승만이 서 있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2월 12일 게재되었습니다.